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95 ~ 11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6

한국 신종교와 지구윤리 - 원불교의 삼동윤리를 중심으로 -

김도공
(원광대학교)

《요약》

한스 쾅 교수를 비롯한 지구윤리 주창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상의 보편윤리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독단주의를 넘어서 종교간 대화와 종교간 협력 작업의 기반 하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신종교 사상을 지구 윤리로 보편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원불교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살펴보았다. 삼동윤리를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도리에서는 종교다원주의 교육의 의미를 도출해볼 수 있다. 종교간 회통 조화의 원리는 한국의 전통사상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내용이고, 이를 육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동기연계에서는 인간존중 생명존중 교육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참다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구상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 부분을 지워내기 위하여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교육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동척사업에서는 탈이념적 평화교육 및 공생운동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념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 종교교육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종교는 종교·인종·이념·과학·생태 등 다가올 인류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신종교의 공통적인 사상은 21세기 인류의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상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조직하여 일반화하지 못한다면 20세기 초 한국의 정신계를 향도했던 빛을 잃을 수도 있다.

핵심주제어: 지구 윤리, 종교교육, 삼동윤리, 종교다원주의, 평화교육

I. 서론: 지구윤리와 종교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지구적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지구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1993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의회선언에서 탄생한 지구윤리 프로젝트와 그로 인해 구성된 지구윤리재단의 한스 쾅 교수의 지구윤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스 쾅 교수는 국가 간의 외교적 활동,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정치적 지원, 군사적 개입 그리고 국제법으로는 더 좋은 세상을 이루기 힘들다고 본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이상·가치와 모든 이들의 지구적 책임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들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윤리, 지구윤리가 없이는 새로운 세계적 질서는 없다고 본다. 지구윤리를 통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협력, 문명충돌의 이면에 있는 종교 간의 평화, 종교적 근본주의를 넘어서는 종교간 대화, 종교적 독단주의를 넘어 설 수 있는 하나의 세계윤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

한스 쾅 교수의 이러한 견해 이면에는 지구윤리 모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핍돌이 바로 종교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구윤리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독단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 작업 기반 하에서 가능하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교가 가진 핵심내용을 보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으로 표현된 핵심 내용들 간의 공통점들 속에서 지구윤리의 기본 틀이 잡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신종교가 지닌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며, 이를 보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한국 신종교의 핵심사상

1. 한국의 신종교

신종교(新宗教, New Religion)는 최근세 사회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롭게

1) 《미래사회와 종교》, 정산종사탄생10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원광대 2000. pp 13-21 참조.

성립된 종교군이다. 한국에 있어서 신흥종교는 1860년 수운(水雲 崔濟愚, 1824-1864)의 동학을 효시로 이후 많은 교단이 성립 전개되었다.

한국 신흥종교를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한국자생 형태, 기성종교 분파형태, 해외전래 형태로 나누어진다.²⁾ 그 중에서 기성종교 분파형태는 대체로 기성종교를 자처하기 때문에 신흥종교로 구분하기 어렵고, 해외전래의 형태에는 최근에 전래된 기성종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기성종교의 분파형태를 제외하면, 신흥종교의 계통은 단군계·수운(水雲)계·증산(甞山)계·일부(一夫)계·불교계·유교계·도교계·기독교계·봉남(奉南)계·각세도(覺世道)계·무속계·외래계·계통불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신흥종교의 대표적인 교단에는 1905년 동학을 개칭한 천도교, 증산(甞山 姜一淳, 1971-1909)이 1901년 세운 증산교, 홍암(弘巖 羅喆, 1864-1916)이 1909년에 세운 대종교, 소태산(少太山 朴重彬, 1891-1909)이 1916년에 세운 원불교 등이 있다.

이들 한국에서 자생된 신흥종교의 교조들이 내놓은 교리는 변화된 시대사회 환경 아래서 민중이 겪는 무지·빈곤·질병 등 사회악에 대응한 구세제인(救世濟人)의 이념이다. 그것은 최근세 이후의 민중사상이 표현된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신흥종교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는 동학 및 천도교·증산교·대종교·원불교의 핵심사상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2. 주요 신흥종교의 역사와 사상

1) 동학·천도교와 그 사상

천도교는 동학의 흐름을 이은 교단으로 최수운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1864년 경북 월성에서 출생한 수운은 어려서부터 인생무상을 느끼고 참된 진리를 찾아 구도하던 중, 32세 되던 1855년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 책을 구하게 된다. 37세 되던 1860년 4월 5일, 《천서》에 쓰인 대로 49일간의 기도생활을 하던 중 한울님으로부터 천계(天啓)⁴⁾를 받고 도통을 이룬 후 동학을 창시⁵⁾하여 포교의

2) 김홍철, 《한국신흥종교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pp. 36-37 참조.

3) 김홍철외 편, 《한국신흥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년 에서는 한국 자생의 교단은 물론 기성교단의 분파까지를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실태조사의 구성은 한국자생신흥종교·불교계 신생종단·그리스도교계 신생교파·기타 외래계 신흥종교로 대별하였다. 이에 수록된 교단·교파가 4대계 34계열 350단체이다.

4)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니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모양은 태극이요 또 그 모양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종교운동을 전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청에서 탄압을 가한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늘어나게 되고, 수운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주(接主)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제자인 해월(海月 崔時亨, 1829-1898)에게 도통을 전수하는 등 교단형태를 갖추어 간다. 수운은 이듬해 12월 동학교도들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관청에 체포되어 이듬해 3월 대구에서 처형된다.

수운을 계승한 해월은 지하조직으로 교세확장에 힘쓰면서 1867년에는 《동경대전》, 1881년에는 《용담유사》를 간행하는 등 소의경전을 마련한다. 1892년에는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일으켰다. 교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흐름은 마침내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폭발하여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혁명은 실패한다. 이후 지하조직으로 포교를 계속하던 해월은 1897년 12월에 의암(義菴 孫秉熙, 1861-1922)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이듬해 원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의암은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명하여 교체를 정비한다. 이를 전후하여 많은 종파⁶⁾가 이루어진다. 의암은 일제 후 독립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는 등 민족대표 33인의 선봉이 된다.

동학·천도교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내천(人乃天)사상이다. 이는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깨달으면 곧 자신이 한울님이 된다는 사상이다. 종래의 신(神)본위에서 인본위로 사상적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둘째, 개벽(開闢)사상이다.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열린다는 뜻인데, 선천세계가 끝나고 대명천지가 도래한다는 후천개벽을 주장한다. 후천개벽이란 인간중심의 문화개벽으로 새로운 문명세계를 가져오게 되며, 이를 천운의 회복으로 본다.

셋째, 보국안민(輔國安民)사상이다. 수운은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구호로 내걸고 우리나라의 운수보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외세에 밀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사상으로, 동학혁명이나 3.1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넷째, 동귀일체(同歸一體)사상이다. 사람과 한울이 하나임을 깨닫고 참된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로 귀일함을 뜻한다. 「오심즉여심(吾心卽汝

은 궁궁(弓弓)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라.’

5) 동학은 당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사조와 함께 전래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서학(西學) 즉 그리스도교에 대비된 용어이다.

6) 한일 합방기에 어용활동을 편 이용구(李容九) 일파의 일진회(一進會), 정씨(鄭道令) 왕국을 꿈꾸며 계룡산 신도안을 개척한 구암(龜菴 金演局)의 상제교(上帝敎, 후의 天眞敎) 등이 그 예이다.

心)」으로 투쟁과 분열의 역사에서 벗어나 평화와 합일의 길로 나아가며, 천인합일 개전일체(皆全一體)의 원리에 의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양극이념을 통합 극복하는 협동의 이념이다.

2) 증산교와 그 사상

증산은 1871년 전북 고부에서 출생하였다. 증산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이다. 고향에서 일어난 혁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내다본 그는 많은 참여자들을 만나 가르침을 베풀게 되고 후일 이들이 중도가 된다. 증산은 31세 되던 1901년 모악산 대원사에서 도통함으로써 후천세계의 대권을 쥐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이른바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독특한 종교운동을 전개한다. 금산사 아래 구릿골에 광제국(廣濟局)이라는 약방을 차려 놓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기행이적을 행하다가 1909년 선화한다.

증산의 가르침은 증산친저인 《현무경》과 언행록인 《대순전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공사사상이다. 천지공사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드는 공사를 말하는데, 증산 자신이 상제의 권능을 가지고 조선과 인류를 구원한다는 원리이다. 이에는 신정정리(神政整理)공사, 세운(世運)공사, 교운(敎運)공사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지럽게 된 것은 이면에 있는 신명계가 원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이 신명계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인간계가 바로 선다는 원리이다.

둘째, 병겁의통(病劫醫統)사상이다. 증산은 인류 앞에는 병겁이 놓여 있고, 이때는 전대미문의 대 병란이 세상을 휩쓸어 거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때를 대비하여 약방을 개설하여 의통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세계 제1,2차 대전과 6.25동란 등을 증산교에서는 병란의 하나로 본다.

셋째,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이다. 해원이란 원한에 사무친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사상이다. 신명계의 원(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원을 풀어 서로 돕고 의지하는 보은(報恩)줄로 연결시켜, 좋은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후천선경(後天仙境)사상이다. 신명계에 평화가 오고 인간계에 평화가 오는 세상을 후천선경이라 한다. 이 시대에는 조화정부(造化政府)가 들어선다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지하운동으로 전개된 증산교에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일은 이러한 사상을 독립운동과 같은 흐름으로 파악한 데 있다.

3) 대중교와 그 사상

대중교를 창립한 홍암은 1864년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2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승정원 가주서(承政院假注書)와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를 역임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심해지자 1904년 호남출신 지사를 모아 유신회(維新會)라는 비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5년 일본에 건너가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청 삼국은 상호 친선동맹을 맺고 한국에 대해서는 선린의 교의로써 부조(扶助)하라」는 의견서를 정객들에게 제시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정치적 활동을 하던 가운데 한국의 고유신앙에 눈을 뜨게 된다. 정치적 구국운동에 좌절을 느낄 때마다 민족종교운동으로 다가서게 된 홍암은 귀국 후 46세 되던 1909년 1월 15일 서울 재동에서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黃皇祖神位)를 모시고 제천의식을 행하며, 단군교의 중광(重光)을 선포하고, 스스로 제1세 교주에 취임한다. 1910년 교명을 대중교로 바꾸고, 단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 일제는 「국조단군을 숭봉하는 항일교단」이라 하여 포교를 허락하지 않고 압박을 가한다. 이에 홍암은 1914년 교도들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여 총본사를 화룡·일산·남관·해림창·당백진·동경성 등지로 옮기면서 지하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다가 1916년 4월에 종통을 무원(茂園 金敎獻)에게 전하고, 8월 15일에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서 순교삼조⁷⁾를 남기고 54세를 일기로 자결을 감행한다.

대중교 교리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 사상이다. 대중교는 단군신앙을 중광하므로써 「널리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한다」는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단군왕검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지도한 이념으로 한민족의 뿌리사상이라고 본다. 그것은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한밤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삼신일체(三神一體)사상이다. 삼신은 삼성리라고도 하며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으로, 사람의 성품과 생명과 정기를 가리키므로 하나라고 본다. 사람은 삼망(三妄: 마음·기운·육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에 사로잡혀 사는데, 감정을 억제하고(止感) 기운을 조정하며(調息) 욕심을 끊는(禁慾) 수도를 하면, 본래 부여받은 완전한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으로 삼진귀일(三眞歸一)이라 한다.

셋째, 애국애족 사상이다. 대중교는 포교활동과 구국운동을 동일시하는 역사

7) 순교삼조는 첫째 대도를 펴지 못하고 민족을 구하지 못하여 민족의 치욕을 가져왔고, 둘째 한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 일이 없으며, 셋째 모든 동포는 회개하여 참된 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를 가꾸어 왔다. 구국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실천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있다.

4) 원불교와 그 사상

원불교는 1916년(원기 원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少太山 大宗師)가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함으로써 창교된 종교이다. 대종사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20여년에 걸친 구도의 과정을 거쳐 26세의 젊은 나이로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창하였다. 그는 「과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원불교를 개교한 것이라고⁸⁾ 밝혔다.

대종사는 대각을 이룬 후 ‘석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나의 연원(淵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 불법(佛法)으로 주체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⁹⁾한 구절이 있다. 이로 볼 때 원불교는 그 연원을 불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면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상징함이 다르며 교단의 형성과정, 운영방식, 제도 등을 보면 기성불교와는 다른 각도에서 조직된 교단이다. 그러나 사상적 근본 진리 면에서는 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불교의 신앙과 수행방법을 통합 활용하여 서로 융통하게 하고, 기성불교에서 일반화된 제도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불교의 불교개혁 방향은 불교의 개혁을 넘어서 현대종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가 제창한 혁신의 표준은 시대화(時代化), 생활화(生活化), 대중화(大衆化)이다. 시대화란 어느 시대에 처하든지 그 시대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동화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사람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짜여진 법이라는 뜻이며, 생활화란 직접 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찾고 깨달아서 불법으로 생활해감을 말한다. 불법은 곧 생활의 지혜를 밝힌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대중화란 서민화(庶民化)요, 시민화(市民化)란 뜻이다.

3. 한국 신종교의 핵심사상과 그 의미

신종교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구세이념을 전개한 만큼 성립된 시기에 따라 사상적 경향도 달라지게 마련¹⁰⁾이다. 약간씩 다르지만 한국 신종교의 사상적 공통

8) 《정전》, 〈개교의 동기〉

9) 《대종경》, 〈서품〉 2.

10) 구한말에 성립된 교단은 전통윤리가 크게 부각되며, 일제 강점기에 성립된 교단은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¹¹⁾

첫째, 후천개벽 사상이다. 개벽이란 천지가 열려 사람과 만물이 처음으로 나온 때를 가리키며, 천지의 시초나 만물의 발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천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선천은 억압과 폭력으로 불평등과 부조리가 가득 차서 어둡고 괴로운 시대이며, 후천은 협력과 조화에 의해 평등과 평화가 가득 차서 밝고 서로 잘 사는 시대이다. 묵은 세상이 가고 새 세상이 오는 것은 민중의 바램이다.

둘째, 원융회통 사상이다. 전통종교의 사상적인 바탕위에 성립된 신종교는 한결같이 그 사상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유불도 삼교는 삼교회통적 시각에서 그 사상의 흐름¹²⁾을 이어왔다.

신종교에서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교단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면, 같은 원융회통사상을 전개하면서도, 대종교는 고유신앙, 천도교는 유교, 증산교는 도교, 원불교는 불교적 색채가 나타난다.

셋째, 민족주체 사상이다. 신종교의 성립이 전근대의 왕조체제 붕괴시대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반외세 민족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수운의 시천주사상은 보국안민 위에 전개되고 있으며, 증산은 서양세력과 중국세력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둔다고 설하기도 한다. 홍암은 일본 침략 하에 있는 나라를 구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종교운동과 동일하게 본다. 소태산은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니 조선이 새로운 나라가 된다’고 하고, 한국을 인류도덕의 부모국, 세계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자격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다.

넷째, 인간존중 사상이다. 신종교는 본질적으로 억압받는 민중의 종교로 출발

과학적·합리적 사고가 강조되고, 광복 후에 성립된 교단에서는 영성(靈性)이 강조된다.

11) 류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의 흐름〉(동편,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에서는 그 특징을 「민족주의사상·인본사상·평등사상·공화사상」으로 정리하고, 김홍철 저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집문당, 1989)에서는 「후천개벽사상·종교회통사상·인본위사상·사회개혁사상」으로, 노길명 저 《한국신흥종교연구》(경세원, 1996)에서는 「인존사상과 민중사상·개벽사상과 지상천국사상·구세주신앙과 선민사상·조화사상과 통일사상·해원사상과 전통문화계승사상」으로, 양은용 〈한국종교사상사에서 본 신종교〉《한국종교》23, 1998년 에서는 「시대인식과 개벽사관·삼교회합에 바탕한 종교회통사상·반외세 민족주의사상·혁세이념과 인본사상」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들의 논점을 종합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12) 원효(元曉, 618-686)의 화쟁사상이나 원천석(元天錫, 1330-1401-?)의 삼교일리론(三敎一理論), 휴정(休靜, 1520-1604)의 삼교회통사상 등이 이를 말해준다.

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이념이 강조된다. 이를 인간중심사상, 인본위 사상으로 부르기도 한다. 권위적인 신권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권이 중시된다.

수운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事人如天)」하고, 증산은 「과거에는 모사(謀事)는 사람에 있고 성사(成事)는 하늘에 있다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사는 하늘에 있고 성사는 인간에 있다」고 하여, 사람을 하늘보다 귀하게 본다. 소태산은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人道上要法)이다」라 말하며, 새로운 시대의 종교는 기행과 이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도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섯째, 사회개혁 사상이다. 특히 근대의 커다란 변혁 속에서 현실적인 모순과 부조리 속에 고통받는 민중의 구제를 본령으로 하는 신종교에 있어서는 사회개혁이 매우 강조된다.

신종교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신종교의 핵심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략 이 같은 내용인 후천개벽 사상, 원용회통 사상, 민족주체 사상, 인간존중 사상, 사회개혁 사상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후천개벽사상에서는 천권시대에서 인권시대로 바뀌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인간 존중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다원적 종교상황과 다민족 상황 하에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현 상황 속에서 볼 때 원용회통사상에서는 종교와 민족 간의 조화와 상생의 의미를 추출해볼 수 있다.

또한 인권 생명이 존중되고 민족간 계급간 종교간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회개혁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인간 및 생명존중, 종교간 조화, 사회개혁으로 정리되는 이 같은 내용이 한국 신종교의 핵심 사상에서 지구윤리화 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에 의하여 주창된 삼동윤리이다.

삼동윤리는 종교의 교리적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보편윤리적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서 신종교사상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인간과 생명 존중의 윤리, 조화와 상생의 윤리와 사회 개혁의 윤리가 그 핵심내용¹³⁾으로 하고 있다.

삼동윤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여러 편¹⁴⁾이 있는데, 그 연구의 주된 결

13) 정산의 삼동윤리에 대한 원불교 내부의 연구논문 뿐 아니라 종교학을 전공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논문이 여러편 연구되어 있고, 이러한 논문의 대체적인 방향은 정산의 삼동윤리가 신세기에 요구되는 종교다원주의 및 평화교육 생명존중의 이념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4) 김영두, 〈정산송규종사의 건국론과 삼동윤리〉,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 김영호, 〈평화사상의 흐름에서 본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원불교사상》 : 나단카츠, 〈종교적 다원주의와 정산의 삼동윤리〉, 《원불교학》 5집, 한국원불교학회

론이 바로 평화사상, 종교다원주의와 새로운 세기 인간 및 생명존중의 논리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들을 볼 때, 삼동윤리는 신종교 핵심사상을 지구윤리화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삼동윤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III. 지구윤리화 모델로서의 원불교 삼동윤리

1.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선포

삼동윤리는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에 의하여 1961년 제창된 동원도리(同源道理)·동기연계(同氣連契)·동척사업(同拓事業)의 윤리강령이다. 그 기본 정신은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은 일원의 진리에 입각하여 앞으로 종교와 인류 그리고 정치가와 사업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윤리적 입장에서 밝힌 것이다.¹⁵⁾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이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두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강령인 것이다”¹⁶⁾ 라고 밝히고 있다.

삼동윤리는 이처럼 모든 다양한 것들이 통합·회통할 수 있는 일치의 윤리를 그 주된 강령으로 하고 있다.

2. 삼동윤리

1) 동원도리(同源道理)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로 종교의 미래 진로를 밝힌 부분이다. 이는

2000 : 박광수, <세계보편윤리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 백준흠, <삼동윤리에서 본 종교 다원주의>, 《원불교학》 1집, 한국원불교학회 1996 : 신광철, <삼동윤리사상의 종교학적 재평가>,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 정재서, <삼동윤리의 사상적 연원과 신세기적 의의>, 《원불교학》 8집, 한국원불교학회 2002.

15) 정산종사의 수시법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삼동윤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써 발표된 것은 1961년(원기 46)의 개교경축식전에서 행한 법설이 처음이다.

16)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4.

종교의 본질을 밝힌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산종사는 동원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와 교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른 바 세계의 3대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처에 신흥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명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본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일원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것이니,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일원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일원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¹⁷⁾

여기에서 일원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된 우주의 성스러운 근원을 원불교적 시각에서 상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물론 우주의 성스러운 근원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부르는 이름이나 문화적 민족적 관습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대상이므로 하나로 만나야 되어 한다는 것이 동원도리의 사상적 기초이다.

동원도리 사상은 종교의 고유한 역사성이나 방편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치와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삼동윤리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으로써 일치는 항상 다양성의 존중과 함께 통합의 기초로서 강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송정산이 전통적인 3교 합일론을 환골탈태시켜 21세기의 바람직한 종교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주지하는 바 헌팅턴(S. Huntington)은 그의 '문명충돌론'에서 향후의 세계가 8개의 문명권으로 나뉘어 각축할 것으로 예견하였는데¹⁸⁾ 이 8개의 문명권은 기독교·회교·유교·힌두교 등으로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미래의 세계에 종교간의 분쟁이 오히려 더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송정산의 동원도리론이 21세기에 요청되는 진정한 화해의 종교관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할 수 있다.

아울러 천주교가 제2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타 종교에 대한 포용론적

17)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5.

18) 새뮤얼 헌팅턴, 이회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pp. 52-57.

입장을 결정, 교황의 교서로 공표하게 되는 것이 1962년 이후의 일임¹⁹⁾을 생각할 때, 송정산의 동원도리 제창은 종교역사상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동원도리의 정신은 다양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정책으로 나갈 때는 종교의 성스러운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간 일치의 윤리를 밝힌 동원도리의 사상은 현대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동원도리의 정신은 정산종사의 스승인 원불교의 창립자 소태산 대종사(박중빈, 1891-1943)의 사상을 계승하여 전개한 것으로 소태산의 어록을 보면 동원도리의 정신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로 예수교의 신자가 소태산의 제자가 되기로 청하는 자리에서 소태산은 예수의 심통제자가 되면 종교의 간격을 넘어서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²⁰⁾ 또 한 예수교 성직자의 질문에 대해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입니까?’ ‘한번 마음을 옹기어 널리 살피는데 있으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며 저의 집 풍속에만 익숙하여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하므로 각각 그 규모와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에 원인함이라, 어찌 원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 한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²¹⁾

교통과 통신기술이 극도로 발달되고 개방된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들이 더욱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영성을 높이면서 인류에 빛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종교들은 일치의 노력과 함께 다른 종교의 다양성 속에 깃들인 장점이 있다면 서로 배워서 자기충실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위대한 종교를 창시했거나 재창조한 성자들에 있어서는 이미 그러한 열림의 종교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후대 종교의 역사는 지나친 원리주의와 아집과 편견·배타주의·집단이기주의 등에 사로잡혀 영적성장을 원하

19) 《제2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 pp. 608-610 참조.

20) 《대종경》, 〈전망품〉 14.

21) 《대종경》, 〈불지품〉 21.

는 인류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되고 있다.

종교가 바람직한 인류구원과 구체기능을 다하면서 사회 통합기능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동원도리의 인식이 요구된다. 동원도리는 포괄주의나 다원주의의 인식범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종교간 조화 화합주의의 성격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동기연계(同氣連契)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이다.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니 곧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른바 4색 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여러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씨족이 각각 살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집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부모형제인 것이며, 인류 뿐 아니라 금수곤충까지라도 본래 큰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다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한 권속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생명들에게도 그 덕화가 두루 미칠 것이니, 우리는 먼저 모든 인류와 생명이 그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된 원리를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인류를 평등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²²⁾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우주기운을 받아 나왔으므로 인종과 민족 씨족에 너무 치우침이 없이 박애와 호혜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윤리이다. 즉 사람과 사람, 생명체와 생명체 간에 근본적 평등과 더불어 일치·사랑·은혜의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박애주의·세계주의·평화주의 이념에 투철한 이른바 종교성자 들에 의하여 많이 주창되어 온 사상이기도 하다. 세계인류를 널리 사랑하려는 사해동포주의는 일찍이 동서의 성자들에 의해 창도되었고, 그러한 박애의 원리가 역사상으로 제도의 혁신과 사상의 개혁에 큰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산종사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2)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6.

인지가 미개하고 제한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가정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한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다. 아직도 그 여풍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시켰다. 이른바 대자대비가 세계주의이며, 인의의 정신이 세계주의이며, 박애의 정신이 세계주의이다. 모든 성인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보아 세계인류가 다 같이 구제받을 대 도덕을 제창하였다.²³⁾

그러므로 민족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씨족주의 등 한정된 이념보다 인류애와 박애의 입장에서 인류가 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주의도 민족·국가·인종·씨족·부모·가족·형제·단체 등을 항상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박애와 인류애의 실현 속에서 도에 맞게 그 다양성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동기연계는 생명체의 근원이 같음을 깨달아서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랑함을 강조하는 윤리이다. 민족·인종·국가·문화·지역·신앙이 다르다고 하여, 가진 것이 다르다고 하여 멸시하거나 학대 착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구제의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동기연계의 윤리강령이 된다.

송정산의 이러한 사해동포주의는 역시 가까이로는 소태산의 사은사상에서 유래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기화우주론(氣化宇宙論),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 등의 사고가 송정산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류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종족주의, 성(gender), 계급(class)등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동기연계론은 적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기연계론의 의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생태학적 세계관의 정립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주의의 오만과 횡포가 빛은 환경위기에 대한 반성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중심으로부터 주변의 식물과 동물, 즉 자연계로 향하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존재성에 있어서 인간과 일반 생물과의 간극이 철폐되고 공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이즈음 동기연계론은 이 시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척사업(同拓事業)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은 동척사업으로 이는 모든 사상가와 사업가들이 걸어

23)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2.

가야 할 윤리를 밝힌 것이다. 정산종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은 동척사업이니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두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그 중간에 여러 세력과 사업가들이 각 각 자기의 전문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벌이고 혹은 그 주장과 방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서로 어울리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동업인 것이며,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업을 중정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²⁴⁾

여기서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동력이 된다 함은 만남과 활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 한 것이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절대시하면 다른 측면에 결함이 일어날 수 있다. 일찍이 소태산은 동척사업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문을 설한 바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는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는 아니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금옥이 비록 중요한 보물이라 하나 당장의 배고픔을 위로함에는 한그릇 밥만 못할 것이요, 양젓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사용처가 각각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건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²⁵⁾

24)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7.

25) 《대종경》, 〈불지품〉 22.

자기편의 사업과 주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과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배우는 일도 중요하다. 적대관계나 이단관계에 놓여있는 사업과 주장까지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배운다면 상호보완이 될 뿐 아니라 상호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동척사업은 다양한 모든 장점이 종합되고 대치적 적대관계를 탈피하여 원만하게 되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삼동윤리의 발표시점이 동서냉전이 극심했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심각한 대립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동척사업의 의미는 이념적 대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나의 것만이 유일하게 정당하고 다른 편의 것은 다 무용하다고 배척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 속에 들어있는 진가를 발견하고 인류 진화를 위한 공동개척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가치만을 존중하고 다른 분야의 것은 배척하고, 종교가가 자기의 종교만이 인류구원의 유일한 처방임을 주장하여 과학기술을 배척하며, 정치가가 정치만이 세계구원의 유일한 처방임을 주장한다면 세계는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또 경제적 물질적인 것만이 일방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나 반대로 정신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태도에도 결함은 있다. 또 예술은 예술대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동양은 동양적 방법만이 우월하고 서양은 서양적 방법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진리적인 것을 서로 배우고 그것을 선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업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종사하는 일 또는 직업만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일들이 인류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공동작업이며 또 진정한 의미의 공동작업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척사업론은 사상 간의 대립, 종교와 과학 등 각 분야 간의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 동척사업론은 동원도리론과 동기연계론의 이념적 지향에 비해 실천적 성격이 강한 언설로 앞서의 이념들을 보다 세간적인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기도 한다.

동척사업론이 다가올 세기의 현안에 대해 지니는 시의성은 앞서의 이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풍부하다. 현실적으로 동척사업론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오늘날의 첨예한 상황은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다국적 기업의 확대에 의한 전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이다.

이제 근대 무렵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²⁶⁾로 성립하였던 독점

26) 앤더슨, 윤흥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사회비평사, 1996, pp. 15-23 참조.

적, 배타적 성격의 국민국가(nation state)는 점차 그 지배력을 상실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 연합, 나아가서는 세계공동체로의 길을 걷고 있다. 21세기 들어 새롭게 열려진 사이버 공간은 국경·인종·성별·계급 등을 초월하여 인류 모두의 표현의 장이 되어 전지구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과학의 흥기는 과학과 종교, 학문과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인류 인식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욕망과 개성이 저 마다의 당위성을 갖고 분출되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동척사업론의 이념은 전지구화 시대 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는 종교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종교뿐 만이 아니라 인류 전반에 걸친 만남과 일치,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여 과거의 종교발전이나 문명발전을 더욱 열린 형태로 이끌어 가려는 폭넓은 조화의식을 강조한 윤리이다. 미래의 종교는 열린 종교와 닫힌 종교의 구분이 문명된 종교와 미개한 종교를 가름하는 준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미래에는 열린 종교의식이 고등종교의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로 될 것이다.

원불교의 삼동윤리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며 공동선의 이상에 입각한, 세계 보편윤리적 성격을 지닌다.

삼동윤리의 또 하나의 특색은 과거 종교라든지 정신운동단체, 혹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에 비해, 이처럼 총체적이며 광범위한 이념의 제시는 그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지구가 한 집안이 되어가고 이에 따라 종교적 이념뿐 아니라 인종문제나 경제윤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준이 요청되는 시기에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보편윤리의 기본바탕이 될 만하다.

IV. 삼동윤리와 종교교육의 방향

한국 신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핵심사상과 이를 지구 윤리로 보편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원불교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한 종교 교리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다른 종교에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를 보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도리에서는 종교다원주의 교육의 의미를 도출해볼 수 있다. 종교간 회통 조화의 원리는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신종교 사상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사상의 계승에도 한층 의미가 있고, 아울러 신종교 정신에도 적합한 종교다원주의 교육의 종교교육 현장에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종교교육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교육보다는 개개종교의 교리전파나 소개가 중심이 된 면이 있다.

현대의 사회는 과거 사회처럼 한 국가나 문명에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 간에 서로 조화 상생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사회나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기연계에서는 인간존중 생명존중 교육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형성된 후천개벽사상에서 비롯된 인권시대와 인간존중 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후천개벽사상은 모든 것을 하늘과 신권에 맡기고 살아오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의 의미가 있다. 비록 20세기에는 너무나 인간 본위적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생명 및 환경에 훼손을 가하는 등 많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완전한 의미의 인권 존중사회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면들을 제거하고 인간과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참다운 문명세계를 만들어가기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교육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동척사업에서는 탈이념적 평화교육 및 공생운동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삼동윤리가 제정되는 시점은 비록 미소 냉전에 의한 동서간의 대립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동척사업의 윤리가 제정되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지구적 상황을 볼 때, 이념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 종교교육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V. 결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은 대개 각 종교 및 종단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이 포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의 교리와 역사 그리고 사상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논자의 의견으로는 각종교의 교리 역사 사상에 대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다 보편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재조직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이 각 종교의 교리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내용이 아닌 종교·인종·이념·과학·생태 등 새로운 사회 인류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 신종교의 공통적인 사상과 원불교의 삼동윤리는 다가올 21세기 인류의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상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변의 시대를 지나던 20세기를 전후하여 한국에는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의 새로운 종교들이 일어나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면서 암울했던 한국의 역사시기에 찬란한 정신의 빛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종교들이 생겨난 지 이미 100여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의 신종교들이 가진 고유한 사상들을 시대에 맞게 사상내용을 재해석하고 이를 일반화하지 못한다면 20세기 초 한국의 정신계를 향도했던 빛을 잃을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대순전경》
《동경대전》
《삼일신고》
《용담유사》
《원불교전서》
《천부경》
《현무경》

- 김영두, 〈정산송규종사의 건국론과 삼동윤리〉,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김영호, 〈평화사상의 흐름에서 본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원불교사상》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김홍철外 편, 《한국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나단카즈, 〈종교적 다원주의와 정산의 삼동윤리〉, 《원불교학》 5집, 한국원불교학회 2000.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류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의 흐름〉,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
박광수, 〈세계보편윤리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 백준흠, 〈삼동윤리에서 본 종교 다원주의〉, 《원불교학》 1집, 한국원불교학회 1996
새뮤얼 헌팅턴, 이회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신광철, 〈삼동윤리사상의 종교학적 재평가〉, 《원불교학》 4집, 한국원불교학회 1998
앤더슨,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6.
양은용, 〈한국종교사상사에서 본 신종교〉, 《한국종교》 23, 1998.
정재서, 〈삼동윤리의 사상적 연원과 신세기적 의의〉, 《원불교학》 8집, 한국원불교학회
2002.
_____, 《미래사회와 종교》, 정산중사탄생10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원광대 2000.

원고접수: 10월 29일 1차심사: 11월 22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김도공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② 관심영역: 종교성, 영성교육, 종교교육, 원효사상, 원불교사상

③ 주요논저: 〈원효의 수행체계연구〉, 〈원효의 지관수행론 연구〉, 〈원불교수행론연구의 현황과 과제〉

④ E-mail: terius2110@hanmail.net

New Korean Religion and Universal Ethics -Focusing on the "*Samdong*" Ethics of *Won*-buddhism-

Kim. dogong
(Wonkwang Univ.)

《Abstract》

By universal ethics-advocates such as Prof. Hans King, it is said that universal ethics on the world is based on true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s among religions beyond religious origins and pharisaism. This paper is to review *Jungsan's Samdong* ethics of Wonbuddhism as a model to universalize korean new religious thoughts to universal ethics. *Won*-buddhism's *Samdong* Ethics can be reorganized to a direction to realize it in the fields of religious educations as following.

Firstly, *Donwondoli* includes the meaning of religious pluralism-education.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igions can be easily found in traditional korean thoughts, 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religious pluralism into religious educations.

Secondly, the meanings of human and life esteem can be found in *Dongkiyeongye*. To create a true culture keeping human being esteem, education for human and life esteem must be introduced in order to take away bad shadows on the world.

The next is that *Dongchuksaup* can deduce the meaning of peace-education and co-existing beyond ideological conflicts. To create a world of co-existing, peace-education beyond ideologies, nations, and ethnics should be essential in religious education.

In conclusion, religions in the 21st century should include the willingness and ways to solve future issues and problems brought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religion, ethnics, ideology, science, and ecology. In this view, common thoughts from new korean religions may have ideological things enough to cope with main issue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when failing to generalize and to reorganize these things as common types, it may lose a way and possibility to guide korean spiritual commun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 universal ethics, religious education, *Samdong* Ethics, religious pluralism, life esteem, peace education